

금융투자업계 간담회

2019.8.6.(화) 10:00  
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

#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9. 8. 6.

금 융 위 원 회

## 1.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

□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

대내외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 
상당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

- 코스피는 3년 1개월여만에 1,950선을 하회하였고,
-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%가 넘는 하락세를 보인 끝에 570선을 하회하였습니다.
- 원/달러 환율은 3년 5개월만에 1,200원선을 넘어 1,215.3원을 기록했습니다.

□ 어제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향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였습니다.

-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8.2일 이후 2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3.5% 하락하였고,  
- 주요국 및 아시아 증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.

※ 주요국 증시 하락폭(8.2 ~ 5일, 2거래일 누적, %)

(한국Kospi)△3.5 (중국상해)△3.00 (일본Nikkei225)△3.81 (홍콩항셍)△5.13  
(미국Dow)△3.26 (독일Dax30)△4.85 (프랑스Cac40)△5.68 (영국Ftse100)△4.76

- 특히,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약·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.

\* 8.5일 코스닥 종합지수 7.46% 하락 대비 바이오(제약)업종 10.25% 하락  
(19.6월말 기준, 코스닥 시총 상위10개 기업 중 바이오업종 시총이 약70%)

- 외환시장에서도 달러-위안 환율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면서,
  - 우리나라 원-달러 환율도 동반하여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미중 무역분쟁 이외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,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
  -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 영향,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, MSCI 지수 편입비율 조정 등이
    - 추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
- 여기에 더해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
  - 미중 무역갈등이 통상문제에서 환율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
    - 일본증시가 △2.7%, 호주증시가 △3.0% 하락하는 등 주요국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
    - 우리 금융시장도 장 초반 코스피가 1,900선까지 하락하고, 원-달러 환율은 1,220원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,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.

## 2.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

□ 최근의 증시 변동성 확대는 복수의 대외적 악재가 겹쳐 발생하면서,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일어난 측면이 큼니다.

○ 이러한 시장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상승작용으로 더 큰 시장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,

- 시장참여자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
○ 오늘 회의는 금투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, 효과적인 시장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

□ 우리 금융시장은 그간 많은 외부충격을 받았었지만,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으로 이를 조기에 극복해 왔습니다.

○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2016년 브렉시트 관련 시장 불안 등을 극복한 우리 금융시장의 기초체력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\* 외환보유액 추이(억\$) : (97) 204 (08) 2,397 (19.7) 4,031.1

\* 단기외채비율(%) : (97) 286.1 (08) 84.0 (19.3) 31.6

\* CDS 추이(5년, bp) : (16말) 44.3 (17말) 52.2 (18말) 39.5 (19.8.5) 33.31

□ 현재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과도한 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의존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았고,

- 글로벌 주식시장에 비해 기업의 순자산대비 주가비율(PBR)이 높지 않은 만큼,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
\* '19.8.2일 주요시장 PBR(배) : (한국) 0.84 (미국) 3.36 (일본) 1.19  
(홍콩) 1.24 (싱가폴) 1.24 (영국) 1.72 (중국) 1.54 (대만) 1.7

-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당장 전반적인 금수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

- 정부는 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」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불안심리를 자제하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주시기 바라며,

-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할 때에는 우리 증시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

-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부터,

-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, 공매도 규제 강화,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에서,

-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하여 신속·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정부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내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시장의 회복력(resilience potential)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